

4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이 속 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
(hyeun@sun.nl.go.kr)

목차

1. 서론
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수집현황
 - 2.1 수집 방법
 - 2.2 자료확충예산
 - 2.3 장서수집현황
 - 1) 국내전자출판물 수집
 - 2) 외국전자출판물 수집
3. 전자출판물의 생산과 서비스 동향
 - 3.1 국내전자출판물의 동향
 - 3.2 외국전자출판물의 동향
 - 1) 전자저널 서비스
 - 2) 웹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3) e-book 서비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의 수집 정책
 - 4.1 수집원칙
 - 4.2 수집방법
 - 1) 자료 구입
 - 2) 웹상의 링크를 통한 정보수집
 - 3) 납본을 통한 온라인전자출판물의 수집
 - 4.3 납본법 개정 필요성
 - 1) 국내현황
 - 2) 외국사례
5. 결론

1. 서론

오늘날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도서관들이 정보환경에 적응하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지향하는 도서관 형태가 하이브리드도서관이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란 도서관에 소장된 책자자료, 전자출판물, 혹은 다른 매체의 자료를 소장해서 이용자가 도서관 혹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하이브리드도서관을 가능하게 한 가장 주요한 환경인자는 인터넷이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자료의 목록 접근은 물론, 소장자료의 원문DB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출판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생산하게 하였고 더불어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이용자에게 책자중심에서 전자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에 수록되어있는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하이브리드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정보환경시스템에 각종 국제표준과 프로토콜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과 현재의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개발해야 하며, 더불어 다양한 매체의 장서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도서관의 패러다임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서정책 중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 온라인출판물을 중심으로 자료확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각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법, 둘째는 생래적으로 전자출판물 형태로 생산되었거나 혹은 인쇄매체로 이미 생산되었지만 전자출판물로 재생산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확충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반적인 수서정책과 공공의 이용을 위해 출판된 국내외 온라인전자출판물을 중심으로 수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가문헌의 전량수집은 물론,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자료와 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요 학술자료 및 정책연구자료 등을 구입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에서 출판된 국가문헌의 납본 수집

- 2) 외국에서 출판된 한국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 3) 국내외에 산재된 한국고전적의 적극 발굴 수집
- 4) 국외자료의 선별적 수집에 의한 전문분야별 장서의 특성화
- 5) 전자출판물의 개발 등 비도서매체의 확충을 통한 도서관 자료의 다양화
- 6) 자료 수증의 활성화를 통한 소급 미소장 국가문헌의 확대
- 7) 국제교환을 통한 외국정부간행물의 교환 수집 확대

2. 1 수집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국가문헌 수집을 위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자료의 제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본, 외국자료의 수집을 위한 구입, 국제교류처와의 교환, 국제기구로부터의 기탁,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가문헌을 수집할 수 있는 납본규정에 의하면 그 제출대상을 인쇄출판물과 물리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 비도서자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있는데, 이들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기록, 지도, 사진, 그림 등의 각종 인쇄자료, 그리고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구입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발간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자료, 과학기술분야의 기초자료, 국가정책입안자료, 교환을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선진 주요국가 정부간행물과 국제기구자료, 다른 도서관이 수집할 수 없는 고가의 학술 연구자료 등이다. 형태는 단행본과 일부 연속간행물은 책자자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자저널과 웹DB 등을 구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290여개 국제교환처와 교환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는 외국의 정부간행물, 혹은 국제교환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잡지, 연보 등으로 대부분이 책자자료이고 소량의 CD-ROM과 마이크로형태의 자료이다. 전자적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일부정부간행물의 경우에는 우리도서관내에서 이용자가 접속해서 인쇄까지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교환자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2. 2 자료확충예산

자료확충을 위한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2. 3 장서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의 총장서(2002년말 현재)는 4,385,873책(점)으로 주제별로는 총류 320,168책

〈표 1〉 연도별 총예산 대 장서확충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총예산	장서확충예산	총예산대비 장서확충비율(%)	장서확충비 증감율(%)
2000	41,945,584	3,167,439	7.6	14
2001	27,670,918	3,167,439	11.4	0
2002	29,975,458	3,471,691	11.6	9.6
2003	30,513,445	4,333,335	14.2	24.8

〈표 2〉 수집방법· 자료형태별 장서확충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납본				구입					기타	총계
	도서	연속	비도서	계	도서	연속	비도서	고서	계		
2000	528,931	118,232	339,205	986,368	1,227,715	69,623	200,000	144,900	1,642,238	538,833	3,167,439
2001	669,269	147,358	169,741	986,368	1,248,623	69,623	250,000	194,900	1,763,436	417,635	3,167,439
2002	674,615	154,398	232,400	1,061,413	1,377,923	69,623	250,000	244,900	1,942,446	467,832	3,471,691
2003	751,466	160,000	220,000	1,131,466	1,965,320	72,500	500,000	261,191	2,799,011	402,858	4,333,335

(7.3%), 인문과학 1,798,207책(41%), 사회과학 1,153,485책(26.3%), 자연과학1,114,013책(25.4%)이며, 형태별로는 국내서 2,909,039책 동양서 249,153책, 서양서 382,034책, 고서 249,616책, 비도서 596,031점 그리고 연속간행물 19,171종으로 구성되어있다. 비도서자료는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음향자료, 영상자료, CD-ROM, 지도 기타자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국내전자출판물 수집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국가문헌으로 수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납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할 수 없다. 그러나 2000년 도서관정보 화사업추진 이후 매년 상업용으로 발간된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과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 정보화사업을 통한 국내전자출판물 구입현황

연도	예산	구입종수	비고
2000	10억원	126종	학회지 및 기타 : 사법행정 등 126종
2001	20억원	533종	학회지 및 기타 : 교육행정학연구 등199종
2002	10억원	2,298종	학회지, e-book 및 기타 : 출판논총 등 2,298종
계	40억원	2,957종	

2) 외국전자출판물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에 구독하던 책자형태의 외국학술잡지의 구독을

선별적으로 중단하고 전자저널로 전환, 구독종수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입대상도 전자저널에서 사전, 통계자료, 편람, 법령집 등의 원문DB, 그리고 서지, 초록, 원문이 수록되어있는 서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전자출판물 구입예산 및 실적

연도	예 산	구입종수	구 입 내 역
2000	2억6천만원	1,354종	전자저널 : 1,303종 Web DB : 9종
2001	2억5천만원	1,329종	전자저널 : 1,303종 Web DB : 17종
2002	3억9천만원	1,529종	전자저널 : 1,506종 Web DB : 15종

3. 전자출판물의 생산과 서비스 동향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전달매체로 부상하면서 전자출판물의 개념이 보다 일반화되었다. 전자출판물을 오프라인전자출판물과 온라인전자출판물로 구분하고, 본고에서는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중심으로 한 출판현황 및 업계의 서비스 동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3. 1 국내전자출판물의 생산동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온라인전자출판물은 2002년 11월말로 37,229종의 전자책이 출판되었고 국내학회지 약1,200종이 전자저널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은 이미 출판된 책자자료 혹은 책자학술잡지들이 전자포맷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책을 비롯한 온라인전자출판물의 출판은 2001년 이후부터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등의 과급효과로 보인다. 생산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36.1%, 무협·오락 20.2%, 만화 12.3%, 어린이·청소년 9.4%, 경제·경영 9.1%를 차지하고 있고 어학 및 학습, 컴퓨터·인터넷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비교적 전자책으로 변환이 쉬운 문학분야의 도서나 사회적 활동성이 강한 성인 남성을 위한 무협지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어린이 관련 콘텐츠의 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인문사회과학이나 컴퓨터 관련 분야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2 외국전자출판물의 동향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은 기출판된 도서자료나 인쇄저널을 전자적 포맷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출판량은 산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년 급속도로 전자출판물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서비스방법도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보브슐츠(R. Boverbschulte)는 10년 이내에 전자잡지가 연속간행물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ISI의 데이터베이스(1998년)에 수록된 전자잡지는 1,702종이며, Ulrich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1999년판)의 온라인잡지는 10,322종, CD-ROM은 3,451종이다. 또한 EBSCO에서 제공하고 있는 5,398종의 유료저널 중 49%가 온라인버전(인쇄잡지포함)이고 34%가 인쇄판과 온라인전자저널의 동시 버전이며 17%는 온라인전자저널만으로 출판한 것이다. 암스트롱과 론스테일(D.J. Armstron and R. Lonsdale)이 세계 각국의 304개 출판사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단행본을 CD-ROM과 웹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CD-ROM버전이 54.1% 웹텍스트버전이 30.56%(영국은 60.87 : 8.7, 미국은 47.37 : 42.1)로 나타났다. 전자출판물 형태 중 도서관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e-book,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로 이들 자료의 서비스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저널 서비스

전자출판물 중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자료는 전자저널이다. 도서관에서의 수요가 높음에 따라 업체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조건도 다양하다.

외국의 전자저널 서비스 형태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저널을 생산한 출판사에서 직접 전자저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며 출판사와 계약 시에 보다 저렴한 가격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구입하고 있는 인쇄저널의 구독을 유지해야 하며, 구독을 희망할 경우 각각 출판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한 출판사별 인터페이스의 차이로 인해 통합검색 및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도서관에서 출판사가 직접 공급하는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형태로는 KAIST에서 주관하여 구성한 KESLI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약 30여개 출판사에서 전자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다수 출판사들이 구독중단 이후에는 별도의 back-up data를 위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출판사측으로부터 컨소시엄 조건 및 비용의 급격한 인상문제로 인해 갈수록 기관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Aggregator에 의해 통합적으로 전자저널을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Aggregator로는 미국의 OCLC와 영국의 Ingenta와 같은 벤더들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출판사의 전자저널을 보유하여 이용기관이 선택적으로 저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구독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CLC ECO는 중소규모 출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출판사의 저널을 통합 검색할 수 있고 하나

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널 구독 중단 시 Archive 저널에 대한 보다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ECO를 통하여 저널 1종이라도 구독할 경우 구독을 중단한 저널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며, 더 이상 ECO를 통하여 저널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구독중단시점으로부터 5년간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에 의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비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인쇄저널 대행사를 통한 전자저널서비스로 EBSCO나 Swets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쇄저널 공급대행을 수행하던 회사에서 외국의 저널구독을 대행해 주는 형태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에 대해 무료로 전자저널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쇄저널을 많이 구독하는 경우보다 유리하기는 하나 많은 저널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2) 웹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1995년 처음으로 국내에 웹기반 온라인데이터베이스가 소개되었고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전문(Full text) 데이터베이스와 서지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데이터베이스는 저널중심의 full text를 수록하여 서지D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저널 100-1000종)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문서비스가 필요없고 수록정보원의 변동이 잦으며 서지데이터수록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독가격이 높다. 전자저널과 다른 점은 전자저널이 하나의 출판사, 혹은 관련학회 등에서 발행된 저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택적으로 저널구독이 가능하다면, 전문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출판사에서 발행된 저널을 서비스하되 선택구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저널이 권/호 단위로 데이터가 구성 이용될 수 있다면 전문DB는 기사검색 중심의 데이터이다. 전문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로 서비스되는 데이터베이스간에는 같은 저널이 동시에 수록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데이터베이스에는 전자저널로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규모 출판사의 중요저널이 수록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서지데이터베이스는 저널, 회의록, 보고서, 학위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을 통합하여 수천 여종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주제분야의 최신정보 입수 및 동향파악에 적합하고 전문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독할 수 있고 추가적인 원문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3) e-book 서비스

e-book 시장은 미국이 기술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전자책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미국의 gemstar-ebook.com은 초창기 전자책 진입사담게 다양한 장르에 걸쳐 8천종이 넘는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MS사는 www.msllit.com을 통해 15,000종이 넘는 전자책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Palm 역시 1만종 정도의 전자책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e-book의 서비스 형태는 e-book 자체로의 서비스와 e-book 데이터베이스서비스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e-book 자체로의 서비스는 대출/반납 과정이 가능한 완전한 e-book 개념의 서비스로서 문학, 예술에서 공학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e-book을 생산해 내고 있다. 개별 출판사에서 이미 책자자료로 출판한 자료를 e-book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Netlibrary나 Elibrary와 같은 Aggregator가 중심이 되어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e-book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대출/반납 과정이 없이 일반 웹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검색 및 원문을 열람하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주로 컴퓨터 및 IT관련 서적, 과학기술/의학분야 단행본, 핸드북, 가이드북, 텍스트북 등 내용의 경신이 빈번하게 필요한 자료들이 e-book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MIT, Oxford 등 유명 대학출판사를 비롯하여 McGraw-Hill, CRC Press와 같은 대형출판사들에 의해 직접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정책의 목표는 한국에서 발간된 문헌을 수집하여 영구보존하고 또한 외국에서 발간된 주요 자료들을 선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지식기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이라고 하여 기존의 자료수집정책과 기본 흐름을 달리할 수는 없다. 다만 온라인전자출판물의 특성으로 인해 책자자료와는 달리 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선정기준, 수집방법 등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 보존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적 환경을 조성해서 자료의 포맷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자료 수집원칙과 수집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 자료수집원칙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 방향은 크게 두 가지를 지향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자료는 물론,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자료 등 우리나라 국가문헌을 수집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의 주요 학술자료 및 국가정책입안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참고자료 등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침

- 국가문헌의 철저한 수집
- 1910년 이전에 발간된 고전적 및 희귀자료의 적극적 발굴 수집
-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매체의 도서관자료 확충
- 외국자료의 선별적 수집을 통한 전문분야별 장서의 특성화

2) 일반원칙

- 국내자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납본으로 수집하고 다만 온라인전자출판물의 경우 현재 법적 납본대상이 아님으로 수증으로 수집
- 국외자료로서 구입대상은
 - 한국인 저작 및 한국문화, 역사, 사회현상 등 한국을 주제로 다룬 자료(북한 관련자료 포함)
 - 외국정부의 정책, 제도관련자료 및 국제기구간행물
 - 문헌정보학 자료
 - 각 주제분야 기초자료, 고가의 학술자료 등을 병행 구입
- 외국자료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료를 구입대상으로 선정

3) 자료유형별 구성원칙

- 일반도서
 - 국내도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 납본 수집
 - 납본법 시행(1963년) 이전 국내출판자료 중 미소장자료는 구입 또는 수증을 통해 수집
 - 국외도서는 각 주제분야별 기본이론서, 학술도서 및 사진, 통계, 편람, 서지 등 일반참고자료 구입, 한국관련자료로서 원본이 없는 자료는 영인 수집
- 연속간행물
 - 국내연속간행물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 납본수집
 - 외국자료는 각 주제분야별 학술지, 기본참고서지, 시사지 등을 중점 수집
 - 외국학술 및 규격 등은 최신성 유지를 위해 전자저널로 확대 수집
 - 자료의 특성상 계속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 수집
- 비도서자료 및 전자출판물
 - 전자출판물 중 오프라인출판물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에 의거 납본 수집
 - 국내온라인전자출판물 수집 확대
 - 수집대상은 현재 도서관자료 중 온라인형태로 생산된 자료
 -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온라인형태로 발간한 자료 우선 수집(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전까지)
 - 온라인출판물과 인쇄매체가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는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행 수집
 - 국외온라인출판물은 인문, 사회, 기술과학분야의 주요학술잡지와 사진, 통계, 규격, 법령집 등은 원문자료를 우선 구입
 - 고가의 외국 Web-DB는 국내관련기관과 컨소시엄의 구성 혹은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구입

• 고서

- 국내 타기관 소장, 1910년 이전에 발간된 고전적 및 희귀자료의 적극적 발굴 구입
- 외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고전 영인 수집

4. 2 수집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방법에는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자체생산이 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현재 도서관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게 생산됨에 따라 이를 링크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자료확충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 자료구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대상은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이다. 1999년 이전에는 온라인전자출판물 수집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전체 자료구입예산 약 25억 중 5억원을 전자출판물 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다. 1999년도 온라인전자출판물 구입예산 1억4천4백만원과 비교해볼 때 200% 이상 예산이 증가되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온라인전자출판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병행하여 효율적인 구입방법을 택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서관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입은 전자저널, 온라인학술데이터베이스, 그리고 e-book으로 확산될 것이다.

현재 우리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구독방법은 국내도서관간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전자저널 서비스업체와의 개별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독하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통한 구독 시 야기되는 문제점, 즉 컨소시엄 구성 초기연도에 비해 해가 지날수록 추가되는 비용부담, 구독하던 전자저널의 중단 이후부터 back-up data와 접속권한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Aggregator에서 공급하는 저널 중 이용자 요구가 높고 구독조건이 유리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구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서지학술데이터베이스의 구입은 전자저널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구독한다. 즉, 한정된 예산으로 저널 등의 원문DB를 완전하게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관련분야의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전자저널을 확대 구입함으로써 전자저널, 온라인학술데이터베이스의 구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 및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지데이터베이스 구독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경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도서관에서 연간 구입하고 있는 단행본 서양서는 19,000책 정도이다. 구입하고 있는 도서 수와 양서구입목적 즉, 보존보다 이용서비스의 극대화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e-book의 구입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용이 경신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e-book database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제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닌 자료를 구입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194명 외부인사와 28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자료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국가정책연구소의 연구원, 대학의 교수들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관내 내부위원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구입자료를 추천 받아 적절한 자료를 구입한다.

2) 웹상의 링크를 통한 정보 수집

온라인출판물을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각종 사이트에 존재하는 많은 전자출판물 중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자료의 경우에는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 영구 보존할 수 있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 중 교환 혹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많은 전자출판물을 링크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향후 도서관에서 자료확충의 또 다른 방법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국립도서관에서는 1990년 중반이후 자국에서 정 부간행물이 전자적 형태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교환처에 IP를 인증해주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부간행물을 비롯한 교환대상의 자료가 전자출판물로 생산이 확대되면 도서관 간의 교환사업도 점차적으로 사이트에 접근해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3) 납본제도를 통한 국내온라인전자출판물의 수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출판되는 온라인전자출판물을 국가문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자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온라인전자출판물을 완전하게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는 책자자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전자출판물에도 법적 납본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온라인전자출판물이 법적 납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전자출판물이 책자자료나 오프라인형태의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법적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법적, 기술적, 조직적인 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3 납본법 개정의 필요

1) 국내 동향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납본제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자자료 및 오프라인형태의 도서관자료들을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인쇄자료는 물론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의 도서관자료들을 납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온라인형태 자료의 출판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국가문헌으로 수집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온라인전자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첫째, 납본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즉 법적 납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국가문헌을 완전히 수집, 이를 영구 보존하여 현재와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신주기가 불규칙하고 다양한 다이내믹출판물의 어떤 판을 납본 받아 국가문헌으로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보상금을 요구할 때 가격산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 인쇄출판물의 경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정가의 50%를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자료를 1종 2부 제출 받아 1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전자출판물의 경우는 자료에 따라 개인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기관에 판매하는 가격이 달라 납본보상금 산정에 있어 도서관과 납본자간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료의 영구보존과 관련하여 납본 시 이용자가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고 도서관이 자료를 컴퓨터화된 자료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소장자료의 컴퓨터부호화 등 매체변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온라인전자매체에 정보를 수록한 출판물을 제작 혹은 생산한 자에게 납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관내토론회 개최 및 외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 검토하여 시행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02년에 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출판물인 경우 그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로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이 도서관법과 다른 긴 하나 전자출판물의 납본 규정을 국내 최초로 규정한 사례로 도서관법 개정 시 참고할 내용이다.

2) 외국의 사례

■ CDNL의 전자출판물 법적 납본규정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온라인출판물을 법적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쿠바에서 개최된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에서 의제로 다루어졌

다. 그 결과 1981년 출판된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UNESCO의 자금지원을 받아 2000년 캐나다국립도서관이 주관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 제6장에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를 삽입하여 각국에서 전자출판물을 법적 납본대상으로 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대상을 규정할 시에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그리고 향후 생산될 수 있는 어떠한 매체도 납본대상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납본대상을 정의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예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의한 “어떠한 형태 즉 문자자료, 그래픽, 시청각자료 혹은 어떠한 매체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이들 정보를 저장 혹은 보급할 의도로 생산한 자료, 개정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료 등 모든 자료가 하나의 별도 문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여기에서 매체라 함은 계속해 읽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기록했거나 전달하려는 수단을 의미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납본대상에는 오프라인전자출판물과 다이나믹전자출판물이 있는데 오프라인형태의 자료는 인쇄자료와 같이 취급하면 되지만 다이나믹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법적 납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다루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납본법에서는 다이나믹출판물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송부를 요구하고 온라인으로 이용이 중단될 때마다 최종판이 납본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납본도서관이란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영구 보존해서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도서관에서 일시적으로 원격지에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료의 최종보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 호주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은 국내출판물을 납본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전자출판물을 법적으로 납본 받기 위해 저작권법에서의 납본규정 개정을 착수하고 있으며 규정개정 시 수락되어야 할 필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각 국에서 법적 납본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다.

납본규정 개정 시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의 규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출판물과 인쇄자료를 출판사에서 쉽게 납본할 수 있도록 법적 납본대상으로 통합할 것
- 납본기관에 주어져야 할 권리로는
 - 전자출판물을 선택적으로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출판사에서 전자출판물을 생산했을 때 도서관에 통지를 해 줄 것
-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 도서관에서 수집장서로 결정하면 확정된 형태의 출판물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리적 형태가 있거나 온라인전자출판물 두 가지 형태로 발간될 경우
 - 도서관에서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출판사로부터 자료를 컴퓨터부호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아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자료접근과 관련하여
 - 상업용으로 출판되는 자료의 경우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중에 이용될 수 있게 권리를 제공받도록 해 줄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납본제도가 호주국립도서관과는 달리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호주국립도서관의 사례가 우리의 법 개정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 네덜란드국립도서관

2002년 글라스고 IFLA 대회기간 중에 Elsevier ScienceDirect社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전자출판물 자발납본에 관한 협정을 맺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이 Elsevier ScienceDirect에서 발간하고 있는 약1,500여종의 저널을 자발적으로 납본 받기로 한 것이다. ScienceDirect社에서는 자사의 저널을 도서관에 판매할 경우 계약 체결된 전자저널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 자사 발행 전자저널을 무상 자발납본할 것을 제의하였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측에서는 동사로부터 자료를 전자적파일로 납본 받아 영구 보존하여 저자 혹은 연구자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약 ScienceDirect社 시스템에 실행 불가능한 장애가 생겨서 고객에게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Elsevier ScienceDirect社 승계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서는 원격으로 이들에게 중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두 기관간의 협정은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을 법적 납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납본 받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있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일부 e-book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내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가 활발해지고 디지털자료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구입을 확대함에 따라 e-book을 비롯한 전자출판물 생산업체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자출판물 판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자책 생산업체에서는 자사에서 발간한 전자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무상납본하고, 향후 생산업체에서 판매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용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대행해 줄 것을 제의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출판물 생산업체간에 이러한 형태의 납본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 지급문제, 자료보존에 필요한 저작권부여문제, 이용자액세스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1993년 World wide web시대가 시작되면서 네트워크화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범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도서관인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새로운 전자매체가, 전통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도서관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새로운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완전한 장서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인 인쇄매체와 전자적 매체를 통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장서개발기본목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할 것이다.

1. 수집범위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하여 장서를 개발한다
2. 국립도서관으로서 국가지식기반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인쇄자료와 전자출판물을 균형있게 수집한다.
3. 세계 어느 도서관도 이용자의 요구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없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장서수집을 도모한다.

이러한 목표아래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은 국내온라인출판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온라인전자출판물을 법적 납본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규정 개정 시에는 가능하면 납본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해서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출현하여도 법개정 없이 도서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납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까지는 ElsevierDirect社에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 자발적인 납본을 하듯이 출판계와 협력하여 자발납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국의 온라인전자출판물 수집을 위해서는 필요예산의 확보와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전에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없이 온라인전자출판물의 수집을 피한다면 인쇄자료수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자료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과정은 자료선정과정이다. 전자출판물의 구입은 인쇄자료만을 구입하던 환경과는 다른,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 내용 검토, 소요비용과 효용성문제, 라이선스계약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법과 협상기술, 시스템 상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은 사항들이 자료구입 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책에 수록되어있든지, CD-ROM에 있든지,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서정책, 저작권이 해결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계획, 웹을 기반으로 하는 목록 개발, 현재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전자책(eBook)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2. 12.
- 윤희윤.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도서관』56권 3호(2001. 9)
- “200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03. 1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Strategies and Action Plan 2001-2002”(http://www.nla.gov.au/policy/electronic/resourcesplan 2001report.html)
- “2001/2002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Library”
- “The Impact of digital resources 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acquisitions” Larry P. Alford
(/http://www.ifla.org/IV/ifla66/papers/168-180e.htm)
-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Jules Larivere
(/http://www.ifla.org/VII/s1/gnl/legaldep1.htm)
- Legal deposit, electronic publications and digital archiving-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experience
- The Challenge of integrated Access : The Hybrid Library system of the future
(http://www.nla.go.aus/nla/staffpaper/jpearce1.html.)
-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nd Elsevier Science make digital preservation history
(http://www.elsevier.com/homepage/newhpgnews/preview /KB/links/link5.htm)